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 연구용역 보고회

남원시, 조갑녀 명무 예술적 가치 활용 살풀이춤 활성화 앞장
예술성·문화예술적 가치 발굴·관광자원 활용방안 제시

남원시는 19일, 이환주 시장과 전통춤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갑녀살풀이명무관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지고, 예술성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조갑녀살풀이명무관은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에 조성되어 있으며, 조갑녀(1923~2015) 명인이 보유한 살풀이춤을 연계해 다양한 전시, 공연 등을 보여주고 있다.

조 명인은 남원에서 태어나 제1회 춘향제인 1931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승무와 검무, 살풀이를 취 명무(名舞)라는 칭호를 받은 남원권번의 마지막 예인이며, 지난 2010년부터는 춘향제 행사에서 살풀이춤을 선보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살

풀이춤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명인의 딸 정명희 교수(조갑녀전통춤보존회 대표)가 살풀이춤을 계승하며 전통춤 전수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용역은 살풀이춤을 중심으로 남원지역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살풀이춤과 관련한 공연 예술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원지역의 전통춤은 물론 무용계 최초의 조갑녀살풀이명무관이 지니는 위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갑녀 명무의 예술적 가치를 활용해 살풀이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조갑녀 명무의 남원살풀이춤.

장수군 문화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 '장수예술서당'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202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선정... 추진협의회 구성·진행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 '202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연구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문화예술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라운드테이블 장수예술서당'이 진행됐다.

장수 장안문화예술촌에서 단청의 의미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역 음악활동가를 대상으로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이론 및 장르별 음악활동의 교수법을 통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졌다.

향후 2차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2차 문화예술교육 강사 '역량강화 라운드테이블 장수예술서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 지역 내에 공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협업체와 활동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장수만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3개의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1월 18일에는 '물·자연과 인간을 잇는 생태예술'을 주제로 1월 20일에는 '해·봄을 지향하는 사회, 장수의 철학을 담은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1월 21일에는 '불·장수역사와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은 문화예술교육이 지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 '2021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연구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역화되고 있는 흐름에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있다. 주제적인 문화예술교육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장수=고관호기자

한국농업문명 한국사 총체적 흐름 살핀 책 출간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농업기술과 한국문명'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가 한국농업문명을 한국사의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본 '농업기술과 한국문명'을 출간했다고 전했다. 소순열 전북대 명예교수와 염정섭 한림대 교수가 썼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가 점성대부터 반도체에 이르는 모든 시기에 걸쳐 다양한 한국 과학문명의 모든 측면을 연구서로 발간하는 '한국과학문명사 총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현재 22권이 출간됐다.

특히 농업기술을 한국문명과 연관 지어 살펴보는 한국농업문명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농업기술문명'의 실제 모습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해 그 성과를 정리했으며, '농업기술문명'의 가시적 실체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바탕으로 '한국농업기술문명'의 일단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사가 단순한 기술사가 아닌 '농업기술문명사'라는 관점을 도입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문명을 해명하는 연구서로서 한편으로는 통사를 지향해 '농업기술로 본 한국문명사',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농업기술문명사'라는 영역으로서 농업, 기술



등에 특화되는 지향점도 있다.

한편,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선사시대 농경의 시작부터 현대 농업기술까지 농업기술의 역사적 변화와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농업문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박순철 교수, '한·중 시화 이야기' 출간

전북대학교 박순철 교수(중어중문학과)가 한·중의 대표적 시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중 시화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책에는 시화의 기원과 정의 및 발전, 동일한 시에 대한 한·중 비평가의 다양한 견해, 종당파와 중송파의 치열한 논쟁, 이백과 두보의 우



열 논쟁, 시와 시인에 대한 이야기, 한·중 대표시의 감상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의 저자 박순철 교수는 중국 고대문학을 전공해 '시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중 비교문학에 관심을 갖고 한·중 시화를 중심으로 시 분야에서 많은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전적과 문집 번역에 몰두해 '이재나고'를 10여 년 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 재충전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동 재충전이 완료된 경우 1월 말부터 순차적으

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i.kr/>),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 또는 발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사업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